

2019년 국가직 7급 가책형

1. 정답 ②

정답 해설

② 재귀 대명사는 문장에서 주어를 다시 언급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되는 대명사이다. 선택지에서 쓰인 ‘당신’은 높임의 상황에서 쓰이는 3인칭 재귀 대명사이다.

오답 해설

① ‘말씀’이 남이 한 말의 의미로 쓰이면 높임의 의미가 되고 자신이 한 말의 의미로 쓰이면 낮춤의 의미가 된다. 선택지의 문장은 ‘제 말씀’이므로 낮춤의 의미이다.

③ ‘저희 나라’는 어떤 상황에서도 쓸 수 없는 표현이다. ‘우리나라’로 표현해야 한다.

④ ‘그건(주어) 만 원이세요, (무엇이-주어) 품질이입니다’ 등의 표현은 손님을 과하게 의식하여 주어인 상품을 불필요하게 높이는 잘못된 간접 높임의 표현들이다. 간접 높임은 객체 높임이 아니라 주체 높임이다.

2. 정답 ②

정답 해설

② 접사는 어근에 의미만 한정하는 한정적 접사와 품사를 바꿔 주는 지배적 접사가 있다. 밑줄 친 ㄱ의 경우 지배적 접사를 의미한다. 선택지의 ‘정답게’ 중 ‘정’은 명사이고 ‘답’이 형용사 파생 접미사이다. 따라서 ‘정답게’는 형용사로 파생한 단어이다. 이때 ‘답’은 명사를 형용사로 바꿔 주는 역할을 했으므로 지배적 접사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 쓰인 ‘기’는 명사형 전성어미이다. 따라서 ‘보기’의 품사는 동사이다.

③ ‘크게’에 쓰인 ‘기’는 명사형 전성어미이다. 따라서 ‘크기’의 품사는 동사이다.

④ ‘낱시질’에 쓰인 ‘질’은 접미사이다. 하지만 ‘낱시’도 명사이고 ‘낱시질’도 명사이다. ‘질’은 어근의 의미만 한정할 뿐 품사를 바꾸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질’은 한정적 접사이다.

3. 정답 ③

정답 해설

③ 글 마지막 부분에 언급된 ‘나바호인은 눈앞에 보이는 선물만을 실감할 뿐 장래의 이익에 대한 약속은 고려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를 통해 나바호인들은 현재의 이익과 가치를 중시할 뿐 미래의 이익과 가치에는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③의 설명은 옳바르다.

4. 정답 ③

정답 해설

③ 엄마가 아이에게 하는 ‘지금 뭐 하니’는 어떤 상황이나에 따라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단순한 질문, 질책, 제안, 명령 등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5. 정답 ④

정답 해설

④ ‘먹고[먹꼬]’의 경우 ‘먹’의 ㄱ(안울림 소리)과 ‘고’의 ㄱ(안울림 소리)이 만나서 경음화가 일

어난 경우이다.

‘껴안더러[껴안떠러]’의 경우 용언 어간의 받침이 ㄴ(‘안’의 ㄴ)이나 ㄹ일 때 뒤에 연결되는 어미의 첫소리(‘더’의 ㄷ)가 경음으로 발음되는 경음화의 경우이다.

‘어찌할 바(어찌할빠)’의 경우 관형사형 어미 ‘르(‘할’의 르) 뒤에 연결되는 평음(‘바’의 비)은 경음으로 발음되는 경음화의 경우이다.

‘결석[결썩]’의 경우 한자어 르(‘결’의 르) 뒤에 연결되는 ‘ㄷ, ㅈ, ㅅ(‘석’의 스)은 경음으로 발음되는 경음화의 경우이다.

오답 해설

① ‘하늘소’의 경우 한자어가 아니다.

② ‘발전’의 경우 관형사형 어미 르이 사용되지 않았다. ‘물동이’도 한자어가 아니다.

③ ‘열 군데’의 ‘열’은 ‘수관형사’이다. 관형사형 어미 르이 사용된 예가 아니다.

## 6. 정답 ③

정답 해설

③ ‘늘리다’는 ‘양, 세력’ 등이 늘어날 때 사용하는 단어이다. 따라서 ‘시간을 늘리다’는 맞는 표현이다. 반면 ‘늘이다’는 길이가 늘어날 때 사용하는 단어이다. 따라서 ‘소매를 늘이다’같은 경우 사용된다.

오답 해설

① ‘가능한’은 ‘가능하다’의 관형사형이다. 따라서 체언을 수식해야 한다. 하지만 선택지의 문장에는 ‘가능한’의 수식을 받는 체언이 없다. 따라서 ‘가능한 한’처럼 수식받는 명사 ‘한’을 함께 써야 한다.

② ‘그들’은 유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체언이다. 따라서 ‘에’가 아닌 ‘에게’를 붙여야 한다. ‘에’는 무정의 체언에 붙이는 조사이다.

④ ‘~지 않다’의 경우 ‘~지’가 동사이면 ‘않다’는 보조 동사가 되고 ‘~지’가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가 쓰이면 ‘않다’는 보조 형용사가 된다. ‘효과적이지’는 서술격 조사가 쓰인 상황이므로 ‘않다’는 보조 형용사가 된다. 따라서 ‘않는’처럼 관형사형 어미 ‘는’이 붙을 수 없다. 관형사형 어미 ‘는’은 오직 동사에만 결합한다.

## 7. 정답 ④

정답 해설

④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의 마음과 바다에서 배도 망가지고 수적까지 만난 도사공의 마음은 매우 위태로운 마음의 상태일 것이다. 따라서 ‘백 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다는 뜻으로, 위태(危殆)로움이 극도(極度)에 달함’을 의미하는 ‘백척간두(百尺竿頭)’가 까투리와 도사공의 상태와 가장 비슷하다.

오답 해설

① 고자단신(孤子單身): 아버지가 돌아가시어 홀로 상중에 있는 자식을 뜻한다.

② 당랑거철(螳螂拒轍): 자기(自己)의 힘은 헤아리지 않고 강자(强者)에게 함부로 덤비는 것을 뜻한다.

③ 마저성침(磨杵作針): 정성(精誠)을 다하여 노력(努力)하면 아무리 힘든 목표(目標)라도 달성(達成)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8. 정답 ①

정답 해설

① ‘대로’는 앞말이 관형어가 오면 의존명사이다. 따라서 띄어 써야 한다. 그리고 ‘르밖에’는 어미이므로 붙여 쓰는 것이 맞다.

오답 해설

② 시간의 경과를 의미하는 ‘만’은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선택지의 ‘만’은 띄어 쓰는 것이 맞다.

③ ‘할 텐데’에서 ‘텐데’는 ‘터인데’의 줄임말로 이때 ‘터’는 의존명사이다. 따라서 관형어 ‘할’과 띄어 써야 한다.

④ ‘만큼’은 앞말이 관형어이면 의존 명사이지만 앞말이 체언이면 조사이다. ‘태권도’는 체언이므로 ‘만큼’은 조사가 된다. 따라서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9. 정답 ②

정답 해설

② ‘분량이나 수효가 많아지다’의 의미인 ‘분다’는 자음 앞에서는 ‘분다, 분고’처럼 어간의 ㄷ이 유지되지만 모음어미 앞에서는 어간의 ㄷ이 ㄹ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개울물이 불어서’처럼 활용한다.

오답 해설

① ‘살가죽이나 어떤 기관이 부풀어 오르다’의 의미인 ‘붓다’는 ‘부어서’로 활용한다.

③ ‘불입금, 이자, 갯돈 따위를 일정한 기간마다 내다’의 의미인 ‘붓다’는 ‘부은’으로 활용한다.

④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의 의미인 ‘분다’는 자음 앞에서는 ‘분다, 분고’처럼 어간의 ㄷ이 유지되지만 모음어미 앞에서는 어간의 ㄷ이 ㄹ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손과 발이 퉁퉁 불었다’처럼 활용한다.

10. 정답 ①

정답 해설

① ‘으매’는 ‘이유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어미’이다. 따라서 ‘추억이 있으매’처럼 사용하는 것은 옳바르다.

오답 해설

② ‘선뵈었다’의 줄임말은 ‘선뵈었다’가 맞는 표현이다.

③ ‘야속하더군요’에서 ‘하’ 앞에 ‘속’의 ㄱ이 안울림 소리이므로 ‘하’가 완전히 줄게된다. 따라서 ‘야속하더군요’의 줄임말은 ‘야속더군요’가 맞다.

④ ‘매우 세계 박히다’. ‘처박다’의 피동사는 ‘처박히다’가 맞다.

11. 정답 ④

정답 해설

④ ‘작가’는 허구적 장르인 소설도 사실성에 근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를 위해 취재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기자는 작가에게 ‘취재에 주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을 것이다.

오답 해설

12. 정답 ③

정답 해설

③ 필자는 마음과 이치를 제외하면 우리 몸뚱이는 귀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몸은 다만 본능에 따르는 짐승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를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마음과 이치를 통해 본능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 정답 ②

정답 해설

② 1문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연령이 문제가 아니라 독서가 문제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독서를 잘하고 못하고는 나이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2문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잡박한 지식의 무질서한 기억은 우리의 총명을 흥미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많이 알고 많이 기억하는 것이 오히려 글쓰기에 방해가 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1문단을 보면 ‘인간이 장수를 한들 몇백 년을 살 것인가’를 통해 인간의 체험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독서를 들고 있다.

④ 2문단을 보면 ‘내 눈을 꼭 한번 거쳐야 될 필요가 있는 서적이란 열 손가락을 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에게 필요한 독서가 있고 그런 독서를 해야함을 언급하고 있다.

14. 정답 ②

정답 해설

② 이 작품은 윤홍길의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로 현대인들의 개인주의적 성향과 자존심에 대한 문제, 산업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의 비극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ㄱ: ‘누군가가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 주었을 수 있다’며 ‘나’는 ‘그’에게 희망을 주려 하고 있다.

ㄴ: ‘그따위 이웃은 없다’는 말을 통해 ‘그’가 ‘나’의 말을 끝이듣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ㄷ: ‘그’의 학력과 ‘나’의 학력을 비교할 만한 정보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

15. 정답 ③

정답 해설

③ 1문단을 보면 우리나라에 명암법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예로 김홍도의 ‘씨름’을 들고 있고 있다. 따라서 김홍도의 ‘씨름’은 명암법이 사용되지 않은 작품이다. 반면 김두량의 ‘견도’는 배경으로부터 들여온 명암법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④ 2문단을 보면 ‘동양 회화는 명암을 의도적으로~배치되기 때문이다’를 통해 근거를 찾을 수 있다.

16. 정답 ①

정답 해설

이 작품은 개화가사인 최돈성의 ‘애국가’이다. 개화 가사란 전통적 양식인 가사의 형식에 개화기 사상을 내용적으로 담은 것을 말한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한마음 한뜻으로 나라에 충성하고 나라를 위해 노력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부녀 경대’ 즉 ‘여성을 공경하고 대접하자’라고 말함으로써 여성을 존중할 것을 사람들에게 피력하고 있다.

17. 정답 ③

정답 해설

③ 도시 주거의 기본 요건 중 하나가 상하수도 시설이기 때문에 예전 주거들은 한강의 지류 하천을 따라서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도시 형성이 필수 조건 중 하나가 자동차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상황이 부각되면서 기존의 하천 주변이 자동차 도로로 바뀌게 된 것이다. 따라서 ‘도시 주거의 기본 요건 중 하나가 상하수도 시설이기 때문에 하천 주변이 자동차 도로가 된 것은 필연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1문단을 통해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② 마지막 문단을 통해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④ 마지막 문단을 통해 근거를 찾을 수 있다.

18. 정답 ①

정답 해설

① 이 시는 김영랑의 ‘독을 차고’이다. 이 시에서 ‘독’은 부정적 현실에 대한 화자의 내면적 저항 및 결연한 대결 의지를 상징한다. 따라서 이 시에서 화자는 부정한 현실에 대한 저항 정신과 순결한 삶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의 화자의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것은 성삼문의 시조인 ‘수양산 바라보며’이다. 이 시조의 화자는 충신으로 추앙받는 백이와 숙제를 던지시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절의와 지조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수양산(수양대군, 수양산)이라는 중의법을 사용하여 계유정난의 상황

- ②는 한호의 시조로 자연을 즐기는 풍류의 멋(安貧樂道)을 표현하고 있다.
- ③은 황진이 시조로 임을 향한 애타는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④는 원천석의 시조로 망국(고려의 멸망)의 한과 회고의 정(무상감)을 표현하고 있다.

19. 정답 ③

정답 해설

③ 常 (떴떳할 상/항상 상 識 알 식, 적을 지, 깃발 치)

오답 해설

- ① 공리(公 公평할 공 理 다스릴 리(이))
- ② 자의적(恣 마음대로 자/ 방자할 자 意 뜻 의, 기억할 역 的 과녁 적)
- ④ 연관성(聯 연이을 연(련) 關 관계할 관, 당길 완 性 성품 성)

20. 정답 ②

정답 해설

② 미래학자가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주된 의의는 미래 예측 시스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는 하나의 의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주된’ 의의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주된 의의는 빠르고 정확한 의사 결정 수립을 위해서이다. 이는 마지막 문단 ‘이러한 장기적 관점의~ 때문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2문단 처음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 ③ 1문단을 통해 알 수 있다.
- ④ 2문단 마지막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